

## 꿈들이 호두과자 판매 관광과 교통 거점 확대

대전시는 대전 대표 캐릭터 멀리리인 '꿈들이 호두과자'의 판매망을 주요 관광·교통 거점으로 확대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는 올해 1월 대전 대흥동에 '꿈들이 호두과자' 3호점을 개소하며 도심 관광 동선과 연계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매 체널 다각화를 준비해 왔다.

바삭하고 따뜻한 제품 제공을 위해 현장 조리·판매 및 위탁판매 매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끝자다. 시는 우선 ▲갑천생태호 수공원 커뮤니티센터(카페) ▲유성복합터미널 매장 등에 현장 조리·판매 형태로 입점을 추진해, 공원 방문객과 터미널 이용객들이 일상에서 따끈한 꿈들이 호두과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역 '꿈들이와 대전여행 흥보관'에 위탁판매 방식으로 입점해,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착과 동시에 대전 대표 캐릭터 멀리리를 기념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꿈들이 호두과자를 관광 동선과 결합한 대전 대표 디자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채봉 기자

## 찾아가는 의료원 첫시동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청양군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의료원'이 지난 7일 운곡면 미령1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진료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기동에 들어갔다.

청양군의 대표적인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의료원'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의사, 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갖춘 의료 버스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지난 2023년 첫발을 뗀 이 사업은 지난 3년 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한층 고도화된 시스템을 선보인다.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개인별 맞춤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방문 보건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와 긴밀히 연계해, 어르신들이 정든 집과 마을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마을 순회 진료는 각 읍·면 이장협의회를 통해 신청한 마을 중 선정된 30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10곳을 별도로 선정해 재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등 연간 총 40회에 걸쳐 촘촘한 의료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충남 "정치적 통합 논의 중단" 촉구해

김태흠 지사 "국회 공청회 배제"로 기자회견 "도민 의견 개진 기회 얻지 못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 및 발언권을 누차 요구했으나 거부당한에 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부 체제를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른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1조 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다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 시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얹혀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요청했다. 김 지사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청년의 경험을 열어주는 충청북도

어린이집 실내환경 바이러스 분석 Pathogens에 게재

충청북도가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는 채용 시장의 높은 벽을 허물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형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모집 공고에 총 284명의 청년이 지원해 약 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면접을 거쳐 최종 35명의 인턴을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오는 2월 9일

별다른 청년인턴들은 오는 2월 9일

이현진 기자

## 시작참여 시 '세종 가치 금융' 우대

### 2026 세종 가치금융 지원 업무협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9일 시청에서 농협은행, 세종신용보증재단과 '세종 가치 금융'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중구

복지민족화협의회(회장 이진우)는 뿐

리죽제 수익금 중 100만 원을 장례비로 기부했으며, 태평동에서 '전국설령당'을 운영 중인 류근선 대표(중구복지민족화협의회 부회장 겸 태평2동 복지민족화협회장)도 50만 원을 추가로

후원하며 마음을 보탰다. 특히, 대전중부모범운전자회는 고인을 화장장까지 모시는 운구 봉사에 직접 참여해,

타국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

영장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가치 금융은 최대 2억 원의 보

증한도로 2년이나 3년동안 1.75~2%

수준의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

면서 ▲세종시장 포상 수여 기업 ▲노

란우산공제 가입업체 ▲소상공인 고

용보험 가입업체 ▲작한기업업소 ▲

뿌리깊은가게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으로 등록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이채봉 기자

## 소망을 담아, 새로운 시작을!

설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꿈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